

■ 영국, 배출권거래제 유인책 마련

○ 영국 정부는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임을 발표함

- 배출권거래를 위한 예비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영국 배출권거래그룹¹⁾은 거래 시작 2년 후인 2003년에 기금을 분배한다는 정부의 정책을 환영함
- 고용불안과 산업 경쟁력의 약화 없이 지구환경을 보호하도록 오염물의 배출량을 비용 효과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배출권거래제도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제도이지만 활성화시키기 위해 해당 기업에 대한 재정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조치를 취함
- 영국 정부는,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많이 감축한 기업에 우선적으로 정부가 조성한 펀드를 부여할 계획임
- 이번에 도입될 활성화제도는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기업들이 배출 저감 목표를 달성했을 경우에 에너지稅 징수액의 80%를 되돌려주는 제도와 맥락을 같이함

○ EU 회원국 중 덴마크와 영국이 예비배출권거래제도를 시행하고 있음

- 지난 해에 제안된 예비 배출권거래제에는 현재 100개 이상의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으며, 최근 영국정부는 이와 관련된 예산을 모두 승인하였음
- 특히 영국은 장차 설립될 탄소거래소를 런던에 유치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배출권거래제를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이것이 유치활동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
- 또한 2005년부터 EU 차원에서의 배출권거래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시범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이의 결과가 EU 시행안에 반영될 것을 기대함
- 결국 自國에 유리하게 배출권거래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다는 기본 전략이 배경이 됨
- 이에 따라 독일과 노르웨이도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해 시범사업을 진행하려고 함

1) UK emission trading group : 영국 내 약 30개의 선도 기업과 관련 정부기관 그리고 단체의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음

- 영국의 배출권거래 기금 적립은 기업들이 배출권거래제도를 이행하
는데 자극제가 될 것임
 - 필요할 경우에 대비해 우리 나라도 관련 사업의 진행 추이에 관심을 갖
고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수행하여야 할 것임

천정용(cildon@hanmir.com, 02-3669-4099)